



## John 11

요한복음 11  
Tape #8079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the eleventh chapter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Now there was a certain man who was sick, who was named Lazarus, of Bethany, the town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11:1).*

We read in another place where Jesus came to the home of Martha. It was the town, though, of Mary. Martha was a homebody. She was a real home person. Martha was, I would say, busybody in a nice sense. She was one who was just, knew everybody. Everybody knew her. So it's interesting it says, the town of Mary. It's the house of Martha but the town of Mary.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곳은 마리아의 동네였다. 마르다는 주로 집에만 들어박혀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 가정을 돌볼 줄만 아는 사람이었다. 그에 비하여 마리아는, 좋게 말하면, 남의 일을 봐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동리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리아를 알고 있었다. 이 동리가 마리아의 동리로 불리는 것은 흥미롭다. 집은 분명히 마르다의 것이었지만 동리는 마리아의 동리였다.

*(It was that Mary which anointed the Lord with ointmen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whose brother Lazarus was sick (11:2).)*

John in the twelfth chapter will tell us about the anointing with ointment. John is writing years later and so as he is identifying her, he says, It's that one who anointed Jesus with this costly perfume. Matthew's gospel tells about it in the twenty-sixth chapter and how that Jesus said she had anointed Him for His burial. But we'll get that in chapter twelve, the first part. We come to the anointing of Jesus by Mary. 요한복음 12장은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 말한다. 요한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었다. 요한은 그녀를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으로 소개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녀가 예수께 기름을 부은 것은 그분의 장사(葬事)를 위함이었다고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12장 초두에 나온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다.

Now this i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anointing of Jesus by the sinful woman when He was at the house of a Pharisee whose name was Simon. The woman came up and she stood at His feet and her tears falling upon His feet,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and then she anointed His feet with perfume. You remember Simon the Pharisee said, If this man were really a prophet, He would have done something about that because the woman is a sinner. He wouldn't let her touch Him. But Jesus, demonstrating to Simon His knowledge of her, and yet His willingness to let her touch Him, He said, Simon, I have something to ask of you. He said, Go ahead. And Jesus said, There was a certain man that had two servants. One owed him a thousand dollars, the other owed him fifty dollars. He forgave both of them their debts. Which one loved him the more? Oh I suppose the one he forgave the more. Jesus said, That's right. Then He started to rebuke him. He said, But I came to your house, you didn't kiss Me, which was the custom, the oriental greeting. You didn't wash My feet. But this woman has kissed My feet. She has washed them with her tears. She has put the perfume on them.

Now I say to you,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 (Luke 7:36-47).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을 죄 많던 한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부었던 사건 즉 예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와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았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은 그 바리새인 시몬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양반이 진실로 선지자였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저 여자로 하여금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음을 시몬에게 보이시면서도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용할 뜻을 비추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물어볼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라고 시몬이 응답했다. 종을 둘 데리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 종 하나는 그에게 일천 달러의 빚을 졌고 다른 종은 50달러의 빚을 졌다. 그는 그 두 종의 빚을 다 탕감해주었다.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네 말이 옳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시몬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내가 네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다. (입을 맞추는 것은 동양적인 인사 예법이었으며 당시의 관례였다.) 너는 내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입을 맞췄다.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는 거기다 향유를 발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눅 7:36-47).

So this is not that Mary. This is a different, we don't know that woman's name. But this is the Mary who just before the crucifixion of Jesus, just a short while before, anointed His feet. And then she, of course,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John identifies her, we'll get that in the twelfth chapter.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여자가 아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에 비하여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예수님의 발에다 기름을 부은 여자이다. 물론,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도 향유를 붓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어드렸다. 요한은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 얘기는 12장에 가면 나올 것이다.

*Therefore his sisters [sisters of Lazarus] sent unto Jesus, saying, Lord, behold, he whom you lovest is sick (11:3).*

The word "lovest" there is the Greek word "phileo". It's actually more of an emotional kind of a love that you have. Jesus loved him. He loved the family. It was a place where Jesus often would stay. He didn't have His own home. He didn't have His own bed but there was always the welcome mat out at the house of Martha and her sister, Mary and brother, Lazarus. And Jesus often when in Jerusalem would stay there with them. He loved them. And so it says, "Lord, the one whom You love is sick." Notice, it's just information. There's not really a request here at all. It isn't really saying, Jesus, come, because they knew Jesus and they knew His love and they knew that He would respond to their need. They didn't feel it necessary to make a request. Just informing Him, the one that you love is sick.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희랍어는 "필레오"이다. 이것은 보다 더 감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집안을 사랑하셨다. 그 집은 예수께서 종종 머무시던 곳이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집이 없으셨다. 그분은 자기 침대도 하나 없으셨다. 그러나 마르다 3남매의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종종 그 집에 머무셨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리는 말씀이라는 데 유의하라. 여기서는 전혀 어떤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와 보십시오 라고 전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굳이 어떤 요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단지 그 분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When Jesus heard that, he said, This sickness is not unto death, but for the glory of God, that the Son of God might be glorified thereby (11:4).*

Jesus is saying that death is not going to be the final issue. In reality, Lazarus was already dead. It is a day's journey, that is, if you really are moving from the area of the Jordan river on up to Jerusalem. Usually they took it in two days. They usually figured ten miles as a good day's journey. It's a little over twenty miles from the Jordan river up to Jerusalem. So if it took a day for the messenger to come down, Jesus waited two days before He began to go to Bethany. If He made it there in a day, this is only three days. He heard the message, He went there, it means that Lazarus was already dead but yet Jesus is saying, "This sickness is not unto death," meaning that death is not going to be the final issue. But there is a purpose in this. God has a purpose in this sickness. And the purpose is that God might be glorified and that the Son of God might be glorified through the sickness. 예수께서는 이 사망이 최종적인 사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실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다. 그것은 하루가 걸리는 여행 길이었다. 다시 말하면, 요단 강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경우, 하루가 걸린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 그 길을 가곤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10마일이면 하루 여행 길이 족히 된다고 보았다. 요단 강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0마일이 약간 넘는다. 그러므로 사자(使者)가 예수께로 오는 기간이 하루 걸렸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후에야 비로서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실 수가 있었다. 그분이 하루 만에 그 길을 가셨다 할지라도 삼일은 걸린 셈이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은 사망이 최종적인 사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사건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셨다. 그 목적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었다.

God has a purpose for the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He doesn't operate apart from a purpose and a plan that He has for us. And God said through the prophet, "I know my thoughts concerning you. They are good, not evil, to bring you to an expected or desirable end" (Jeremiah 29:11). So Jesus is saying, There's a purpose for this.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목적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렘 29:11). 예수께서는 이 질병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Now Jesus loved Martha, and her sister, and Lazarus (11:5).*

Here is a different Greek word. The one that you love is "phileo." Emotional thing. Now Jesus loved, this is "agapao," from which we get, of course, the agape. The "agapao," Jesus was devoted to them. He loved them divinely, spiritually. There was a deep, deep love for Martha and Mary and Lazarus.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 단어는 다른 것이다. 누이들이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 즉

감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은 “아가파오”였다. 물론 여기서 아가페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룩하면서도 영적으로 사랑하셨다. 마르다 3남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깊고도 깊었다.

*When he had heard therefore that he was sick, he stayed two days still in the same place where he was (11:6).*

He didn't just say, Let's take off. But He remained there for two days. 예수님은 당장 떠나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다.

*Then after that He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into Judaea again (11:7).*

It was as though He wasn't going to respond at all to the need. Staying there for just a couple of days. And then He says, Now let's go to Judaea. 마치 저들의 필요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더니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다.

*His disciples said to him, Master, the Jews of late sought to stone You; and You're going to go there again (11:8)?*

In the last chapter we remember they were taking up stones to stone Him because they said He was claiming to be the Son of God. But He escaped out of their hand. Now the disciples say, Lord, You want to go back up there again? The last time we were there, You remember they were going to stone You.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으나 예수께서 저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10장의 내용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주여, 다시 그리로 올라가시려 합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저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을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Jesus answered, Are there not twelve hours in the day? If any man walk in the day, he stumbleth not, because he seeth the light of this world. But if a man walks in the night, he stumbles, because there is no light in him (11:9,10).*

Jesus said, I know what I'm doing. You walk in the daylight because you can see where you're going. Jesus is more or less saying, I know where I'm going. I know what I'm doing. I'm aware. I'm not walking in darkness. I'm not oblivious to what's going on. He was in control of the situation.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낮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기에 너희가 돌아다니지 않느냐.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대강 이런 뜻이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다.

*These things He said: and after that he said unto them, Our friend Lazarus sleepeth; but I go, that I may awake him out of sleep. Then said his disciples, Lord, if he sleeps, he's probably getting better. Howbeit Jesus was speaking of his death: but they thought that he had spoken of taking of rest in sleep. And so Jesus said unto them plainly, Lazarus died (11:11-14).*

It's actually there in the past tense, “Lazarus died.” It's interesting that the term “sleep” has been used for the death of the child of God to distinguish it from the death of a sinner. If you're a child of God, you really don't die. It's more like sleeping than death. And so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It's really wrong to say concerning a child of God, He died last week. No, he moved last week out of a tent and into the house. Someday you might read in the paper, Chuck Smith died. Don't believe that. That's poor reporting. To be accurate, they must write, Chuck Smith moved out

of an old worn out tent into a beautiful new mansion.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잠자다”라는 말을 쓴 것은 흥미롭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진실로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다 라기보다는 자는 것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가 지난 주에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틀린 말이다. 그렇다. 그는 지난 주에 장막에서 벗어나 집으로 입주해 들어갔다 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신문에서 척 스미스가 죽었다 라는 기사를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사를 믿지 말라. 그건 서툰 보도이다. 정확히 말하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 척 스미스가 오래되고 낡은 천막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사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고후 5:1)으로 옮겨갔다고 기사를 써야 한다.

So they used the term “sleep.” You remember when the daughter of Jairus had died. When Jesus came to the house, they were wailing and He said, She’s not dead. She only sleeps. And they laughed Him to scorn. So He put them all out. Now He is using the same term concerning Lazarus and the disciples don’t understand it. They said, If he’s sleeping, he’s probably getting better. And so Jesus just said plainly, He died. But then He said, 그러므로 여기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다. 여러분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 집에 당도하셨을 때 그들은 울고 불고 야단이었다.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내어쫓으셨다. 여기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그가 자고 있다면 잠시 후에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가 죽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 am glad for your sakes that I was not there, to the intent that you might believe; nevertheless let us go to him (11:15).*

When Jesus does come, they say, Lord, if You’d only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And they were probably correct. Had Jesus been there when he was sick, He probably would have healed him so that he would not have died. But Jesus is saying, I’m glad for your sake I wasn’t there. Remember He is in this state for the glory of God that the Son of God might be glorified. This is the sixth of the signs that John gives to us to prove that Jesus was the Messiah. 예수께서 오시자, 누이들은 말했다: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마도 옳았을 것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면 그분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터이므로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쁘게 생각하노라.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제시한 증거들 중 여섯 번째의 것이다.

On two other occasions, Jesus raised the dead, little Talitha, the daughter of Jairus, but she had just died. She wasn’t dead very long. There was the widow’s son of Nain. They were carrying the body out for burial when Jesus stopped the funeral procession and healed him or brought him back to life. It would probably be better to say, resuscitated them rather than resurrected them because they came back into the same body. In the resurrection, we’re going to have new bodies, different

bodies. But they came back into the same body. Their spirits returned to the same body.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는 이 외에도 두 번 더 있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 그 딸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었다. 다음으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생했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그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부활 시에는 새로운 몸, 다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저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소생하였던 것이다. 저들의 영이 동일한 몸 속으로 되돌아왔다는 말이다.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Jesus in all of the cases talked to the dead. Now you wouldn't think of doing that, would you? He said to her, Little maiden, arise. Or little gazelle, arise. And He said to the son of the widow to arise. Later on, we'll find Him saying, Lazarus, come forth.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여 살리셨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꿈도 못 꿀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분은 처녀야 일어나라 즉 소녀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후에 그분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게 될 것이다.

So Jesus is now deliberately waiting so that there will be no question. You could say, Well, maybe they hadn't really fully expired. Maybe she had just gone into a coma and it appeared that she was dead and maybe. In fact, there are some commentaries that suggest when Jesus came up to the casket and saw the widow's son, He saw a flicker of his eye or something and realized that he really wasn't dead so He called him forth. And so these kind of commentators wouldn't have an opportunity to really deal with this issue. He waited two days so that by the time He arrived, he had been dead for four days so that there could be no mistaking that this guy is really gone. And then the miracle becomes even more prominent because of the time that lapsed between his death and between the resuscitation by Jesus.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일부러 늦장을 부리신 것이다.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들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나 봐.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나 봐.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주석서도 있다: 예수께서 관 쪽으로 다가와 과부의 아들을 쳐다보시니, 아이의 눈동자가 깜빡이는지라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일어나라 고 명하셨다. 이런 종류의 주석자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분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다. 그런 고로 이 아이가 죽었는지에 대해 오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있었다. 나사로가 죽은 시각과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시각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이 기적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I'm glad for your sakes that I was not there, to the intent that you might believe." Purposes of God in this is that it might confirm the faith of the disciples in Jesus. "Nevertheless," He said, "let us go to him."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Then said Thomas (11:16),*

And Thomas is sort of that douer kind of a guy, 도마는 이렇듯 얼간이 같은 사람이었다.

*which is called Didymus [which means a twin], unto his fellow disciples, Let us also go, that we may die with him (11:16).*

In other words, they're going to kill Him. They were ready to stone Him and they're objecting.

Lord, don't you remember they were ready to stone You. And so Jesus said, Let's go. And Thomas says, Let's go, fellows, we might as well die with Him. This is the end kind of a thing.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이다. 저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만류하였다. 주여, 저들이 돌을 들어 당신을 치려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도마가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갑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생각이다.

*And when Jesus came, he found that he had already been in the grave for four days. Now Bethany was near to Jerusalem, about fifteen furlongs off (11:17,18):*

A furlong is about an eighth of a mile so Bethany is just a little less than two miles from Jerusalem. 우리는 1/8마일에 해당하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마일이 조금 못 되는 거리였다.

*And many of the Jews ca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concerning their brother (11:19).*

Quite often when a person would die, they even have professional mourners. People who were particularly adept at wailing. And they would hire them and you would have to stay in the house for seven days wailing after the death of a person to really demonstrate your love. And so Mary and Martha were there in the house and other Jews had come to wail with them over the death of their brother, Lazarus. 종종 사람이 죽을 때마다, 유족들은 직업적으로 곡하는 자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우는 데는 선수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였다면, 여러분은 고인이 사망한 후 7일간 집에 머물면서 저들이 곡을 다 마치도록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고인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인해 마리아와 마리다의 집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저들의 남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서글퍼 하며 곡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이다.

*And Martha, as soon as she heard that Jesus was coming (11:20),*

Broke protocol. You weren't to leave the house for seven days but she broke protocol. 이것은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다. 7일 간은 집에서 떠나갈 수 없었지만, 마르다는 그 의례를 깬 것이다.

*and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remained there in the house. Then said Martha unto Jesus, Lord, if You would have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11:20,21).*

I think, though we can't be dogmatic, I think that with Martha there was surely disappointment and perhaps even a slight rebuke of Jesus. It was more or less saying, Lord, what took you so long to get here? Surely by our message You realized it was serious. If You'd only come earlier, if You'd only come more quickly, You could have averted this tragedy. You could have averted our sorrowing and our grief. If You'd only have been here, things will be different. But then she said something interesting, 교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분명히 실망한 기색이 있으며 아마도 예수님을 좀 원망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주여, 무슨 일을 보시느라 바쁘셨기에 이렇게 늦게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전갈을 드린 내용으로 보아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더 일찍 오시기만 했더라면, 더 빨리 걸으시기만 했더라면, 주께서 이 비극을 바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저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여기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만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후에 그녀는 흥미로운 얘기를 한 마디 했다.

*But I know, that even now, whatsoever You will ask of God, God will give it to you (11:22).*

That's quite a statement. Is she suggesting that Jesus could actually raise her brother from the dead? Or that God could if He would just ask Him? "I know that whatsoever You ask of God, He will give it to You." It would appear that that's what she was perhaps suggesting. However, when they came to the tomb and Jesus said to roll the stone away or to take the stone away from the entrance to the tomb, it was Martha who said, "O Lord, you better not because he's been dead there for four days and it's smelly." So sort of an ambivalence. I think we all understand that. 이건 대단한 말이다. 마르다가 한 얘기가 진정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르다의 말은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덤 가까이로 가서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다였다: "주여,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이른바 양면적인 태도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There is with each of us sort of an ambivalence at times where we say, O Lord, we know You can do anything but Lord, don't you realize what's really happening here? It's sort of, the faith sort of wavers. 때때로 우리에게서도 이런 양면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우리는 '주여, 당신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모르십니까?'라고 종종 묻는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인 동요(動搖)이다.

*Jesus saith un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11:23).*

I believe that Jesus is telling her, I'm going to raise him. But she understands Him to be talking of the resurrection of the last days. The one that Daniel prophesied.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내가 그를 살리려 하노라 라는 의미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 있는 그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는 줄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So Martha said unto him, I know that he sha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Jesus said unto her, I am (11:24,25).*

And this is the sixth "I am" of Jesus. "I am,"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의 "나는 ...이다" 이다.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11:25,26)?*

She had said, "Lord, I know that whatever You ask the Father, He will give it to you." And now He is making this statement, radical statement indee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s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Lazarus had believed in Jesus. Though he was dead, yet he will live. "And he that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Jesus in that second part, "He that liveth and believeth in me shall never die," is referring to spiritual death which is the separation of a man from God. The separation of a man's consciousness from God. That's spiritual death. To live without the thought of God, without the consciousness of God. To live your life without consulting God. Thinking about God. You're spiritually dead. "If you live and believe in Me," Jesus said, "you will never die." That is, you will never be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진술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과격한 것이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즉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말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식(意識)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

Paul the apostle teaches that “we know that when this earthly tent, the body in which we presently live, is dissolved, goes back to dust, we have a building of God,” a new house, this is a tent. You never think of a tent as a permanent place to stay. Couple weeks vacation. But boy, it’s nice to get home.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d from them. Not to be an em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the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know that as long as we are at home or living in this body,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we would choose rather to be absent from this body, that we might be present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1,2,3,6,8) Never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Paul the apostle said,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I’m in a strait between two.” I’ve got these mixed emotions. “I have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And yet I know that you still need me. And so I’m held here, the desire to continue to minister to you and to strengthen you. But I would choose rather to just depart and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Philippians 1:21-25).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땅의 집은 천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은 장막을 영구적인 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천막은 한 뒤 주 방학 때 이용할 수는 있어도, 좋기로 말하면 내 집이 더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이것은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는 종종 신음하며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가 육신을 입은 영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으로 옷 입고자 함이다. 우리가 집에 즉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줄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에서 떠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함이다” (고후 5:1,2,3,6,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적으로는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나니” (빌 1:21-25).

So Jesus is saying, You live and believe in Him, you will never be separated from God’s love.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Do you,” He said, “believe this?” Notice that she didn’t really affirm her belief in His being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She affirmed her belief that He w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다. 그분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녀가 실제로 긍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She said unto him,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which should come into the world (11:27).*

A little less than what He had said.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신앙이다.

*And when she had so said, she went her way, and called Mary her sister secretly, saying, The Master is come, and He is calling for you (11:28).*

John does not record the full conversation with Martha because it doesn't record that Jesus said, Go, get Mary. Nor does it record where Jesus said, If you can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And later Jesus said to her, Don't you remember I said, If you will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So John doesn't record that but we know that He did say that to Martha. So we're getting an abbreviated account of their conversation. 요한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게 아니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가서 마리아를 데려 오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생략한 것이다. 또한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고 말씀하신 것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 후에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고 내가 네게 이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한이 그런 기록들을 빠뜨리기는 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 어쨌든 우리 앞에 놓인 기록은 생략된 것이 있는 대화 내용이다.

*And the Jews which were with her in the house, who were comforting her, when they saw Mary, that she rose up hastily and went out, they followed her, saying, She going to the grave to weep there (11:31).*

Or to, the word “weep” is “wail there.” 여기서 “곡하다”는 “소리쳐 울다”를 뜻하는 말이다.

*Then when Mary was come where Jesus was, and saw him, she fell down at his feet (11:32),*

Typical of Mary. The worshipper. You remember on an earlier occasion when Jesus was at their house and Martha was busy in the kitchen fixing things and getting things prepared. Where was Mary? She was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Just talking to Him. And Martha said, Lord, send my sister in here to help me. She has left me to do all the work. And she's just sitting there and talking to you. And Jesus said, O Martha, Martha, you're cumbered with many things: But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Luke 10:39-42). Typical for Mary at the feet of Jesus. Next chapter we'll find her anointing Jesus and wiping His feet with her hair. Typical of Mary, the worshipper. And so she fell at the feet of Jesus. 마리아는 대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앉았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인 것이다. 여러분이 기억할는지 모르나, 이런 일이 있기도 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한다. 그러면 그 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가? 그녀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눅 10:39-42).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은 마리아의 일상적인 모습이였다. 다음 장으로 가면, 그녀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모습이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이다.

And she said unto Him,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had not died. She said the same words that Martha said. I think that this reflects that they had talked about that. When Lazarus died, I'm sure that they kept talking about it and said, If the Lord had only been here. If the Lord had only have made it. He wouldn't have died if the Lord was only here. I'm sure that that was one of the subjects that they were talking about when Lazarus died. Oh, how disappointing. If He'd only been here, he wouldn't have died. 마리아는 예수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도 마르다와 꼭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 둘이 사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주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주께서 이곳으로 오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야.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그분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So Mary is saying the same thing as Martha. However, you really don't know what a person is saying often unless you hear the tone of voice. I think that Martha's tone of voice was sort of a rebuke. Whereas Mary's is just sort of, Oh Lord, You could have done it, I know You could have. It wasn't so much of a rebuke, just a declaration and one of just affirming her belief in His powers and in His ability. 그러므로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그가 진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마르다의 어조는 꾸짖는 듯한 어조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에 비하여 마리아의 어조는 '오, 주여 당신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것은 꾸짖는 듯한 어조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것을 선언하는 어조였을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하는 그녀의 믿음을 긍정하는 선언이었을 것이다.

*When Jesus therefore saw her wailing, and the Jews also wailing which came with her, He groaned in His spirit, and was troubled (11:33),*

The Greek there is interesting, it was, "He was filled with indignation." He became angry. Not at their wailing. But He became angry at the consequences and the result of sin. When He saw the pain that sin brings. When He saw the grief and the sorrow that has been brought upon mankind by sin. He was troubled, He was angered, He was filled with indignation seeing the consequences of sin. What sin does, the sorrow and the grief that sin brings. 여기서 사용된 희랍어는 흥미롭다. 그것은 "그분은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다. 그분은 화가 나시게 되었다. 사람들이 곡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신 게 아니었다. 죄의 결과를 보셨기에 화가 나셨던 것이다. 죄가 가져온 고통을 보시고 죄로 인해 인류에게 초래된 고통과 슬픔을 보시는 순간, 그분은 경악하시게 되었고 화가 나시게 되었고 분노로 가득하시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죄로 인해 어떤 슬픔과 고통이 닥치게 되었는지를 보시게 되셨을 때 그분은 화가 나셨다.

*And He said, Where have you laid him? They said unto him, Lord, come and see (11:34).*

And there that short verse. When you were in Sunday School and they asked for a scripture memory verse, this is one we all knew, wasn't it? 그런 다음에는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온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다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구절을 하나 외우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Jesus wept (11:35).*

The word here, “Jesus wept,” is different than their weeping which I mentioned was wailing. This just speaks of tears began to course down His cheeks. He wasn’t weeping as they supposed because Lazarus was dead. Because He knew that in a few moments He was going to glorify God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But again I believe He was weeping because He could see in the sorrow and in the bitterness the pain that sin does bring. 여기에 나오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곡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단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곡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곡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분은 몇 분 후가 되면 자기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는 그분이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슬픔과 비탄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In another occasion we find Jesus weeping over Jerusalem. And it was for the same cause. He could foresee what their rejection of Him was going to cost them. He began to prophesy the destruction that was going to come upon Jerusalem by the Roman soldiers. He began to talk about how the children were going to be dashed in the streets and how the Roman army was going to encircle Jerusalem and how it was going to destroy the city and how the temple would be destroyed. And as He looked over Jerusalem, He saw the desolation and the devastation that their rejection of Him was going to bring. And He wept. Not because they were rejecting Him, but He wept because He could see the consequences of that rejection. 또 한 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적이 있다. 그 때도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이 그분을 거부한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실 수 있었기에, 그분은 장차 로마 군사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파멸에 대해 예언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거리에다 내동댕이 쳐질 것인지, 어떻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것인지, 어떻게 그 도성이 파멸될 것인지,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를 묘사하기 시작하셨다. 예루살렘을 굽어보실 때, 그분은 그분을 거부한 일로 인해 장차 닥치게 될 파멸과 황폐를 내다보실 수 있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셨던 것이다. 저들이 그분을 거부한 일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다. 그 거부가 가져올 대가를 예측할 수 있으셨기에 그분은 우셨던 것이다.

Again, weeping over the consequences of sin. The sorrow, the pain, the suffering that it brings. We are brought by Jesus into the heart of God. You remember He said,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John 14:9). And we see the Father weeping over the pain and the suffering that sin brings into a person’s life, into the world. The effects and the consequences of sin. The pain, the suffering that sin brings. Jesus wept. 다시 말하지만, 죄의 결과를 내다보시고 우신 것이다. 죄가 초래할 슬픔, 고통, 괴로움을 보시고 우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 14:9).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사람의 생활 속으로 가져올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아버지도 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죄의 효과와 결과, 죄가 가져올 고통과 괴로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신 것이다.

*The Jews, misunderstanding said, Look how much He loved him! And some of them said, Could not this man, which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have caused that even this man would not have died (11:36,37)?*

They’re, more or less, saying, If He had only been here, maybe He could have kept him from

dying. 사람들의 말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 만일 저분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Jesus again groaning in himself came to the grave. It was a cave, and there was a stone that was laying upon it. Jesus said, Take away the stone. And Martha, the sister of Lazarus that was dead, said unto him, Lord, by this time he stinketh: he has been dead for four days (11:38,39).*

They didn't have any embalming. In fact, even to the present day, the Jews do bury the body the day the person dies. They don't have the same kind of procedures that we have here, the embalming the body and lying in state and so forth. They just take the body out and bury it immediately the day they die, the person is buried. And so the decomposition of the body had started. He's been dead for four days. 저들은 나사로의 시신을 방부처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날 시신을 매장해버리고 만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방식과 절차를 저들은 따르지 않았다. 시신을 향료나 약품으로 처리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죽는 즉시 그 날로 시신을 지고 나가 매장해버릴 뿐이다. 그러므로 시신의 분해가 이미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말이다.

*Jesus said unto her, Said I not unto thee, that, if you would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11:40)?*

As I said, John didn't record Jesus saying that to her but Jesus is reminding her. Don't you remember I said to you, If you would believe. She had expressed earlier, "Lord, I know that whatsoever You ask of God, He will give it to You. She said, I believ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Now though in practical reality, her doubts are coming forth. Lord, he's been dead for four days, we better not. And Jesus said, Didn't I say to you, If you would just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은 모든 대화를 다 수록해 놓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을 것이다: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앞에서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의 말은 나는 주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란 뜻이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 그녀가 실제로 현실에 부딪치게 되니까 의심이 솟구치게 된 것이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How true this is. If we would just believe, we could see the glory of God. 이것은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Then they took away the stone from the place where the dead was laid. And Jesus lifted up his eyes,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And I know that You hear me always: but because of the people which stand by I said it,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11:41,42).*

His own little personal conversation with the Father. "Father, I know that You heard Me, I know that You always hear Me. It really isn't for My, it's not for Me, but for the people's sake that I say it, that they might know that You have sent Me." 주님은 잠깐 동안 아버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셨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And when he had thus spoken with the Father,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11:43).*

Quite often, the witch doctors and all sort of mumble incantations over the dead. Soft little incantations that you can't understand. Jesus didn't just sort of mumble, "Come forth," in case nothing happened. Nobody would know. But He said it with a loud voice so that they could all hear. And I can imagine. And again notice, He's addressing a man who's been dead for four days. He's calling him by his name, commanding him, speaking to the dead. And He commands him to come forth in a loud voice that all can hear. And don't you know for a moment there was great tension. I'm sure that those that were wailing suddenly stopped with their mouths still wide open. What is He saying? He's putting it on the line. He said,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Now He's putting it on the line. Is that just an empty boast? Or is it reality? He's putting it all on the line right here. In a loud voice, He says, Lazarus, come forth. Now if Lazarus doesn't come forth, then we can discount all He said. If Lazarus does come forth, then we better pay attention to what He said. What happened?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주술적 행위라든가 온갖 종류의 마술적 행위가 너무도 자주 죽은 사람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주술은 남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하신 게 아니었다.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들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건대, 그분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죽은 자에게 명령을 발하셨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다. 잠시 동안 큰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다.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크게 벌렸던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한 채 모든 행동을 갑자기 중지했을 것이다. 저 사람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지금 큰 실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날 것이니라" 고 말씀한 바가 있다. 이제 그분은 그 말씀을 실험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허풍이었는가? 아니면 사실이었는가?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도마 위에 올려 놓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일 나사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언행을 평가절하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사로가 나온다면 그 때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분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해 놓으셨으니 말이다.

*And he that was dea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graveclothes: and his face was bound about with a napkin. Jesus saith unto them, Loose him, and let him go (11:44).*

You remember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it was different. The graveclothes were still lying there in place and the napkin was folded and lying separately. But here, Lazarus, still bound hand and foot in the graveclothes, probably had to sort of jump out. And Jesus commanded, "Loose him, let him go."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일이다. 그분의 수의가 그대로 제 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머리를 찢던 수건은 판 곳에 개켜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나사로가 여전히 손과 발이 묶인 채 수의에 싸여 나왔던 것이다. 아마도 경충경충 뛰면서 나왔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명령하셨다: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Then many of the Jews which came to Mary, and had seen the things which Jesus did, believed on him. But some of them went their ways to the Pharisees, and told them the things that Jesus had done (11:45,46).*

They went and reported Him. 저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보고하였다.

In the sixteenth chapter of Luke, Jesus tells the interesting story of a rich man and Lazarus and how that they both died but were separated in the grave or in hell by a gulf. Lazarus was being comforted in Abraham's bosom and the rich man was tormented. Seeking that Abraham would send Lazarus with water to touch his tongue to alleviate the torment of that heat. And Abraham said, Son, remember you in your lifetime had the good things, Lazarus the evil. And now he is comforted while you are tormented. Beside that, there is this gulf between us and it's impossible for those that are there to come over here, or those that are here to go over there. And he said, I pray thee then, if Lazarus cannot come to me, send him back to the earth that he might warn my brothers lest they come to this horrible place. Abraham said, They have the law, they have the prophets. If they will not believe them, neither will they believe even though one comes back from the dead (Luke 16:19-31).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들 모두가 죽었는데 그들의 사후 처지가 구렁을 사이에 두고 음부와 낙원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했다. 나사로를 통해 물을 좀 보내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줌으로써 그 뜨거움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이 너는 평생 좋은 것만 누렸으나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도, 우리 사이에는 이 구렁이 있어서 그 편에 있는 자들이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자들이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한 가지 청하겠나이다. 만일 나사로가 이곳으로 올 수 없다면 그를 땅으로 돌려보내어 나의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저들로 이 무시무시한 곳에 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느니라. 만일 저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눅 16:19-31).

We have, I think, a mistaken notion that if our friends could just see a miracle, then they would believe. If you are disposed not to believe, if you are determined and you've set your mind not to believe, no amount of miracles is going to convince you. It takes the Holy Spirit to convince us of sin and to plant faith in our hearts. 우리는 만일 우리 친구가 어떤 기적을 본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했거나 결심했을 경우, 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And so, here are those, there were those that did believe, but there were those that actually ran to tell the Pharisees. He's at it again. To report Him. 한편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 얼마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갔다. 저가 또 이적을 행하고 있다 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였다.

*So there gather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a council, and they said, What shall we do? for this man is doing many miracles. If we let him thus alone, all men will believe on him: and the Romans will come and take away both our place and nation (11:47,48).*

Notice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their positions. And Jesus was a threat to their positions. They were lording over the people in a religious manner. They were profiteering over the people's religion. They were using it to set themselves up in an aristocracy. They lived in the finest homes in Jerusalem. They were wealthy because of the way they had manipulated the religious practices so that they could profit from them. And Jesus was a threat for their positions. 이들은 지금 자기의 지위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 지위에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는 말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종교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출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안의 멋진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적 관습을 그들 멋대로 변경시킴으로써 부유한 자가 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 예수가 위협이 되고 있었다.

You remember later when Paul was preaching in Ephesus. It was Demetrius, the silversmith, that stirred up the crowd against Paul. He got together with the other silversmiths and said, Look fellows, these people are converting the people to Christianity and telling them that these little gods that we're making, these little silver gods that we're making and selling to the people, that they're not really gods. And so many people are believing them. Our business is being threatened. We're apt to be out of business, no one will be buying the little silver idols of Diana. And so they stirred up a riot against Paul and against those that were working with him because their trade was threatened (Acts 19:24-27). 여러분은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한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행 19:24-27).

They had been thriving and prospering off of the religious superstitions of the people. And they knew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would bring an end to that. 이들은 사람들의 미신적인 종교 성향을 이용하여 번영하며 번창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모든 영화가 끝장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Unfortunately, there are those who have learned since how to profit off of these things. But Jesus was a threat to their position. "If we leave Him alone, the Romans will come and take away both our place and nation." 불행하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때뿐 아니라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의 지위에 위협이 되신다. "우리가 그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지위와 나라를 모두 탈취해버릴 것이다."

*And one of them, whose name was Caiaphas, he was the high priest that same year, he said unto them, You know nothing at all (11:49),*

Here they are, having this big discussion, and of course, this guy says, Hey, you know nothing at all. Boy, that immediately just puts down everybody, doesn't it?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가야바란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구나. 이 말을 하자마자 모두 잠잠해졌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으니 말이다.

*Nor do you consider it that it is expedient for us (11:50),*

That word "expediency." How many horrible things have been done in the name of expediency? Today they call it political correctness. Expediency. "Don't you realize that it is expedient for us," 그는 "유익하다"란 말을 사용했다. 이런 "유익"이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졌는지 모른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유익"이란 말 대신에 '정치적 정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people, and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not (11:50).*

This is politics at its worst. Politics is bad, but this is at its worst. Notice how he says it in such a politically correct way. He didn't say, Don't you realize we got to kill Him? Now that's what he's saying. But he couches it, Don't you realize it's expedient that one should die for the people, that the whole nation doesn't. The national interests are greater than individual persons. It's hypocrisy, it's politics. 이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정략이다. 정략이란 원래 나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런 형태는 가장 고약하다. 그런 고약한 일을 그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리화시키는지 주목해보라. 그는 우리가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이런 말로 매끄럽게 포장했다. 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 죽어 국가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국가적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위선이다. 이것은 책략이다.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ough this was a politicized kind of a speech, because he was the high priest, there was a certain kind of anointing of God that went with the office. And this man was actually uttering a prophesy not even realizing it. And so John tells us in verse fifty-one,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비록 이것이 정치술로 위장된 연설이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의 말은 실제로 하나의 예언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한은 5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한다.

*This he spake not of himself: but being the high priest that year, he prophesied that Jesus should die for the nation (11:51);*

Prophesying that Jesus wasn't going to die for Himself, He was going to die for the nation. 이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다.

*And not for that nation only, but that also he should gather together in one the children of God that were scattered abroad (11:52).*

That Jesus would die for the world. He didn't realize that that's what he was predicting. And that's exactly what was going to happen in not many days. 이는 예수께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다. 그는 자기 말이 예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후일 발생하게 될 사건을 정확히 꼬집는 말이었다.

*Then from that day forth they took counsel together to put him to death. Jesus therefore walked no more openly among the Jews; but went from there unto a country near the wilderness, into a city called Ephraim, and there continued with his disciples (11:53,54).*

In the previous chapter, it was in the wintertime that Jesus was in Jerusalem at the feast of dedication, December 25th, when He healed the blind man which resulted in this confrontation with the Jews in which they were going to stone Him. He then left, went on down to the Jordan river until summoned by Mary and Martha because of their brother's illness. He cam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but then He then returned to Ephraim to be away from the Jews because He knew that His crucifixion was to take place at the passover as He would fulfill all of the symbolism of the passover. And that took place in April. So these events are taking place between the first of the year and April, the first couple of months. We don't have just the exact dates. But He goes to Ephraim and there He waits until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when He comes back to Jerusalem for the final time. 10장에 의하면, 수전절을 당해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예루살렘에 계셨었는데 그 때는 겨울철이었다고 한다. 그 때 예수께서 한 소경을 치료해 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렇듯 대결하게 되었는데 저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였다. 그 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요단 강가로 내려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들의 동생이 병들었다고 전갈을 할 때까지 거기 머무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동리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 유대인들을 피하려고 다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의 모든 상징들을 완성한 다음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은 4월에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 해의 1월과 4월 사이에 즉 그 해 초기의 수 개월 사이에 발생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이 에브라임으로 가셔서 유월절 6일 전까지 거기 머무신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최후를 맞으신 것만은 분명하다.

*Now the Jews' passover was nigh at hand (11:55):*

In other words, we now are moving and how long He was there at Ephraim, we don't know. But not too long. How long He was at the Jordan river before Mary and Martha called, we don't have. We just know that this is compacted into a space of about two months or three months, January, February and March. So "the Jews' passover was at hand," 다시 말하면, 이제 그분이 주거를 옮기시기는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에브라임에 계실지는 우리도 모른다. 아주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할 때까지 계셨는데, 그 분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요단 강가에 계셨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이 모든 일들이 대략 두세 달 동안에 즉 1,2,3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뿐이다.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and many went out of the country up to Jerusalem before the passover, that they might purify themselves (11:55).*

It wa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rites of purification in order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temple precincts on the feast days. So they would go early so that they could go through the purification rites. 가까이 다가오는 그 절기에 성전 경내에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하였다.

*Then they sought for Jesus, and they spoke among themselves, as they stood in the temple, What do you think, will He show up at the feast? Now both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had given a commandment, that, if any man knew where Jesus was, he should show it, that they might arrest him (11:56,57).*

So word was out. Know where He is, report Him. We want to arrest Him. The plot was hatched. They were ready to put Him to death. The conspiracy has been established. And so the people were wondering. The buzz around. You suppose He'll show up? 그런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라. 우리는 그를 체포하기 원한다.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모(共謀)를 꾸미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이렇게 묻곤 했다: 그분이 과연 올라오실까?

And so as we move into chapter twelve, we find that Jesus does show. Not in secret, He comes riding in on a donkey amidst the shouts of His disciples. So our next study will take us into chapter twelve. And again we always encourage you to read in advance what we will be studying.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비밀리에 나타나신 게 아니었다.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환호성 소리에 묻혀 당당하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12장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은 언제나 다음에 배울 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기 바란다.

Once in a while when I read the newspapers and I see the tragedy that sin has brought into the world, I see the grief and the pain and the suffering. I understand a little bit the heart of Jesus who wept over the pain that sin brings. And I'm sure that you also must feel that way sometimes when you read of what's happened and what is happening. The pain, the sorrow that sin brings. But Jesus came that He might cancel out the results of sin. And in your life as you surrender your life to Him, He can cancel out the pain and the sorrow and the suffering that sin has brought. And He can give you, as the prophet said He would, "beauty for ashes and the cup of joy for mourning" (Isaiah 61:3). Oh how I love Him, how I appreciate His love for me. 신문을 읽을 때 가끔 나는 죄가 이 세상으로 가져온 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죄가 초래한 고통, 슬픔, 재난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가 가지고 온 고통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비극적인 기사를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죄가 가져온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읽을 때에 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의 결과를 없애버리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이 삶을 그 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죄가 가져온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없애주실 것이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사 61:3) 하실 것이다. 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May you go in the love of Jesus. May you be enriched in the love of Jesus. May you become very conscious and aware of His love, of His presence with you this week. Sustaining you, helping you, guiding you, keeping you steadfast in His love.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의식(意識)하고 깨달으며,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변함없이 보호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